

위기를 기회로, 재도약 하는 협회 만들터!

Crisis as an opportunity. To make KIRA leap again!



강성익 | Kang, Sung Ik, KIRA President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주)한라 종합건축사사무소
-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역임

어느덧 겨울이 가고 생동하는 봄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금 우리 건축계는 건축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 사무소 양극화, 업역축소 등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과 제도 역시, 건축사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건축설계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시장개방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건축사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건축사법 전면 개정안도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건축계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회원여러분께서 믿음과 신뢰로 성원해주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고, 그럴만한 역량과 지혜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회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대와 격려를 마음 속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2년 동안 협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와 협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회장, 약속드린 것을 꼭 지키고 실천하는 회장, 언제나 회원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와 건축계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한다면, 시대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리더로서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으로서 그동안 천직으로 삼고 정열과 혼을 쏟아왔던 건축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 건축사협회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바꿀 것은 바꾸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건축사회원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유지관리법의 제정과 건축설계산업진흥법의 제정, 건축사의 복지제도 강화 등 제가 공약했던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께서 공약하신 사항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과제들은 협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건축사와 글로벌 건축사 모두가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데 협회가 앞장서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건축계 대내외적인 변동성에 대해 협회내 위기관리 체제를 상시화하고, 우리 협회가 어느 전문가단체보다 힘 있는 단체로 거듭나서 회원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 할 때는 질책하여 주시고 부족할 때는 용기를 주십시오.

저와 집행부는 생각보다는 실천을, 온건보다는 투지를 앞세우고 함께 뛰고, 비장한 각오로 이 어려운 건축계를 헤쳐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위기의식, 유연성과 민첩함을 갖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회원여러분들께 나아갈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믿고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축사의 위상과 미래!
건축계를 선도하며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건축사협회!

만드시 이룩됩니다. ■